

## 내 용 증 명

발 신 인   ○ ○ ○  
          주 소

수 신 인   ○ ○ ○  
          주 소

## 임금 지급 청구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인은 귀하에게 고용되어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서울시 ○○구 ○○길 소재 ○○당구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.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인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4.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500만원의 임금을 20○○. ○. ○.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,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 시 부득이 민,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○○.   ○.   ○.  
위 발신인   ○○○

내 용 증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.</li> <li>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내 용 증 명 의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「최고」를 규정하고 있으며 「최고」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화해를 위한 소환, 임의출석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/li> <li>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「최고서」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「최고」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계약의 해제(해지),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,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/li> <li>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.</li> <li>(※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)</li> </ul>
제출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</li> </u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</li> </ul>